

한국 사회과학 협의회 소식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발행인 임현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권두언 사회과학의 도전과 과제	김 정 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02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임 현 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04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김 종 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06
월례 세미나	제프리 알렉산더	08
학회동정		10
협의회행사 / 프로그램		12
소식란		14
학회 임원진 소개		15

김 정 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최근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그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약 력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미국 클레이몬트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금융 및 거시경제 전공)
미국 Harvard 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영국 Cambridge 대학교 국제학센터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국 자문교수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 국제분과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상경대학 학장, 경제대학원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장(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현)
아시아금융학회 회장(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지역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빈곤 그리고 소득양극화 등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학이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과학의 각 분야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비해 사회과학의 개별분야에서는 해당 분야만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역시 현실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 때 몇몇 경제적 변수를 제외한 다른 정치적, 사회적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이른바 Ceteris paribus (다른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있다. 사회과학 현상이 상호 연관되어 작동하는데 연관된 부분을 분석하지 않고 일부분만 분석하니 현실 문제를 설명할 수도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회과학의 도전과 과제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과학을 종합해서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학의 시스템 역학(System Dynamics)에서는 시스템 구조도(System Diagram)을 작성해서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경제학에서도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기업의 투자부진이 과도한 임금상승 때문이라고 해서 노동개혁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과도한 임금상승은 연금시스템이나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고령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 고령화는 진전되는데 연금체제와 복지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후 소득을 준비하기 위해 과격한 노사분쟁을 일으키거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한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은 물론 국회나 정치권에서 연금이나 복지제도를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결국 경제문제는 정치, 사회, 행정 모든 분야와 연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고의 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일시적으로 증상만 해소시켜 줄뿐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다시 재발하면서 그 국가나 사회는 선진화 되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된다.

한국은 지금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이 이전되면서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구조적 변화에 적합한 제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새롭게 구축되지 못할 경우 성장은 정체되고 고용은 감소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사회과학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경영, 심리, 역사, 교육, 지리, 여성, 사회복지, 문화인류, 언론, 국제개발 등 사회과학 각 분야의 15개의 대표학회들이 참여하여 상호 연관되고 공통된 이슈를 연구하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임 현 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정상회의에 참석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미래는 공유경제가 될 것이고 그 주인공은 지금의 젊은이들”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네이션 블레차르지크 에어비앤비(Airbnb)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보사회에서 소유보다 접속이 중요하듯 앞으로는 공유경제처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유경제란 시간과 지식 같은 무형 자산까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향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어린 시절 한 방에서 식구들이 같이 지낸 기억이 난다. 유일한 문명의 이기인 라디오는 함께 들었다. 한일협정이후 TV가 도입되자 저녁 두 시간정도 방영 시간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같이 보곤 했다. 오늘날처럼 독방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혼자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더불어 산다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최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등장이 단독 소유 개념을 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온다. 물품을 “개인의 소유를 넘어 서로 나눠 쓰는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는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오늘의 정보통신혁명이 있다.

이제 사회 구성원이 민간이나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고용사회(employee society)는 ICT 기술의 등장으로 의미를 잃고 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SNS로 서로 연결하여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빛과 그림자

2011년 <타임>지는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10가지’에 공유경제를 선정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렌터카를 대체하는 ‘Zipcar’, 운송 네트워크 ‘우버’(Uber), 자전거를 공유하는 ‘록8’(Lock8), 낯선 사람들끼리 밥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 ‘집밥’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25조원의 시장규모가 10년 후 10배를 넘는 350조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어렵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 차이는 있지만, 경기는 가라앉고, 실업은 늘고 부채는 쌓이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양극화로 인해 삶의 양과 질이 위협받는 상황 아래 지금의 자본주의의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연 공유경제가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흔들리는 자본주의를 바로 잡아줄 수 있을런지 흥미롭다. 생산과 소비에서 자원고갈, 환경파괴, 물자낭비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살기 어렵다 보니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돈, 시간, 서비스 등을 나눠씀으로써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공유경제다. 그러한 물품의 공유는 가치는 올리고 낭비를 줄인다.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싼 값에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도 올해 여행 중 ‘에어비앤비’를 사용해 보니 선택지가 다양하고 값이 저렴하고 이용도 편리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호텔에 비해 방값은 싼데 보증금을 내라하고 숙박하는 동안 안전을 위한 보험도 들어있지 않았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니 비용은 내려가는데 서비스 품질은 약속받을 길이 없다. 서비스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소비자로서 만족도가 갈린다.

공유경제도 결국 돈벌이다. 수익모델에 치중하다 보니 물품의 공유 보다 이익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 공유라는 개념이 허상이 될 수 있다. ‘우버’의 경우 리프트(Lyft), 깃(Gett) 등 유사업체의 등장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을 제약을 받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보험도 없고 법규도 따르지 않는다.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자 아니면 노동자인가도 분명치 않고, 자칫하면 남는 방을 빌려주고 자기 차 운전해 돈 더 버는 세컨드 잡을 뛰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의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하며, 기존의 업체를 위협하여 좋은 일자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시장을 넘어 공업(共業)으로

오늘의 관료화된 기업조직에서 능력을 위해 부단한 조직과 문화의 개편이 이루어지지만 창조와 혁신이 지체되곤 한다. 공유경제는 시장의 바깥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으로 업종의 진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창조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일종의 비(非)정규군이다. 이러한 주문형 경제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소비유형을 유도함으로써 기존 산업 생태계를 자극하여 변신을 유도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생산과 소비가 바뀔 수 있다. 기존의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들이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를 바 없다.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공업(共業)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자율과 공유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공유경제가 말 그대로 독창성과 책임성을 갖고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종 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로 명명 지어진 이틀간의 학술행사에는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 아시아 자본주의 전문연구자 14명과 국내의 연구자 7인이 참여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국내의 아시아 자본주의 전문연구자 다수가 청중과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틀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자본주의의 기원, 공통점, 그리고 다양성에 관한 다양한 최신의 연구진행 결과들을 해외의 연구자들과 격의 없이 활발히 나누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로 명명 지어진 이틀간의 학술행사에는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 아시아 자본주의 전문연구자 14명과 국내의 연구자 7인이 참여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국내의 아시아 자본주의 전문연구자 다수가 청중과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틀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자본주의의 기원, 공통점, 그리고 다양성에 관한 다양한 최신의 연구진행 결과들을 해외의 연구자들과 격의 없이 활발히 나누었다.

이틀간의 학술행사는 2회의 키노트 세션과 공통 주제별로 묶인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학술회의 첫날의 첫 번째 키노트 발표자로 나온 서울대학교 김경동 명예교수는 한중일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을 동아시아 근대화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이어진 미국 산타바바라대학교의 Jan Nederveen Pieterse교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다층적 분석(layered analysis)를 통해 접근할 때,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술회의 두 번째 날의 키노트세션에서는 듀크대학의 Nan Lin 교수와 영국 카디프대학의 Glenn Morgan 교수가 발표자로 나와, 아시아 자본주의 전문연구자로서의 학술적 깊이

와 예리함이 있는 주제발표를 해주었다. 특히 Nan Lin 교수의 최근의 중국자본주의에 대한 섬세한 통찰과 Glenn Morgan교수의 금융화와 결합된 21세기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아시아 자본주의 연구의 중요한 미래기획을 제시하였다.

2회의 기초발표 세션 이외에도 학술회의 첫날에는 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아시아의 기업, 정부, 네트워크라는 두 개의 주제 하에 아시아, 유럽, 미국, 남미, 그리고 국내의 발표자 7인과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중국과 일본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비교하고, 신자유주의 및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아시아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날에 계속된 3개의 주제별 세션에서는 아시아 자본주의에서의 기술/혁신의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과 변모, 그리고 아시아 자본주의의 미래 전망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자본주의를 다루었던 네 번째 세션에서는 90년대 이후 새롭게 변모, 적응하고 있는 한국자본주의를 세 명의 발표자들이 각각 역사적, 제도적, 그리고 발전주의의 변용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청중들의 많은 호응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포함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아시아의 부상에 따른 주제의 시의 적절성과 함께,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공통주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현실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이번 학술행사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연구재단 및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역시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았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향후에도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우리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주제를 찾아, 연구교류의 확대와 함께 공동의 연구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프리 알렉산더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2015년 11월 19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2015년 제3회 월례세미나 “세계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을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 및 한국이론사회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월례세미나에서는 예일대 사회학과 교수인 제프리 알렉산더가 “Contemporary Morality: Crisis, Societalization and Civil Repair”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월례 세미나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렉산더는 사회 내에서 제도 간에 간과되었던 문제들이 “코드 전환(code switch)”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해결되는 과정을 사회화(societalization)로 개념화한다. 알렉산더에 의하면 베버, 뒤르켐, 파슨스, 루만 등이 주장하는 근대성에 대한 거시 사회학 이론에는 자율적인 사회적·문화적 영역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나, 이들의 이론은 각 영역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는 않는다. 알렉산더의 “사회화”(societalization) 이론은 각 영역 간의 관계가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으며, 제도와 엘리트들이 이 영역들을 지배하기 위해 갈등하는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엘리트가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개입되는 영역이 시민사회의 영역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에 간과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알렉산더는 제도 사이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의 긴장이 유지 및 통제되는 상황을 일종의 ‘정상 상태(steady state)’라고 말한다. 제도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도 내부의 논리로 해결되고, 그 제도를 지배하는 엘리트가 갈등을 통제하며, 긴장 관계가 아

기하는 갈등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경험되는 상황이 이러한 정상 상태의 특징이다.

알렉산더는 유럽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도착 스캔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영국의 전화해킹 스캔들 등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각 영역 안에서 해결되어 왔으며, 문제가 암묵적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 내에 속한 사람들은 위의 문제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위의 문제들은 공적 영역에서 다루지지 않았다. 그런데 영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인식되던 문제가 코드 전환 과정을 통해 사회화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 문제들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제의 사회화를 통해 제도 내부에 오랫동안 존재하던 문제가 처음 발생한 문제로 알려지고, 기존에 문제가 다루지던 제도 내부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의 가치로서 문제는 재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의 정상상태는 무너지고, 사회적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이 교정하고자 한다(civil repair). 알렉산더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교정 작업(civil repair)이 제도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화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정상 상태와 교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학회동정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1. 경제사학회

» 2015 하계학술대회
일시 : 2015년 6월 27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201호

2. 국제개발협력학회

» 2015 동계학술대회
주제 : 한국 국제개발학의 현실과 도전 과제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 2016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6년 5월

3. 대한지리학회

» 대한지리학회 70주년 학술행사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장소 : 더케이호텔

» 2016 지리학대회
일시 : 2016년 6월

4. 한국경영학회

» 추계심포지엄
주제 : 유통의 미래지향적 역할: 혁신과 세계화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 2016 춘계심포지엄 및 하계학술대회
일시 : 미정
장소 : 미정

5. 한국경제학회

» 동계 정책심포지엄
주제 : 한국경제의 진화와 그 대응방안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시 : 2016년 2월 17~18일(수, 목)
장소 : 서울대학교

6. 한국교육학회

» 2015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주제 :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
일시 : 2015년 8월 28~29일(금, 토)
장소 : 부산대학교

7. 한국국제정치학회

» 연례학술회의
일시 : 2015년 12월 4~5일(금, 토)
장소 : 국립외교원

8. 한국문화인류학회

» 2016년 학술회의
일시 : 2016년 5월 20일(금)
장소 : 신한대학교

9. 한국사회복지학회

»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16년 4월 29~30일(금, 토)
장소 : 미정

10. 한국사회학회

» 2015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일시 : 2015년 12월 18~19일(금, 토)
장소 : 서강대학교

11. 한국심리학회

»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주제 : 한국인의 위험지각: 안전불감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일시 : 2015년 8월 20~22일(목~토)
장소 :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센터

12. 한국언론학회

» 201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주제 : 응답하라, 언론학: 초연결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철학
일시 : 2015년 10월 17일(토)
장소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3. 한국여성학회

» 추계학술대회
주제 : 혐오의 시대, 공감의 윤리(가안)
일시 : 2015년 11월 21일(토)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14. 한국정치학회

» 2015 연례학술회의
주제 : 한국정치학의 과학성/ 규범성/ 실용성
일시 : 2015년 12월 4~5일(금~토)
장소 : 국립외교원

15. 한국행정학회

» 동계학술대회
주제 : '좋은 행정'(Good Public Administration) 구현을 위한 실천과 처방
일시 : 2015년 12월 11~12일(금, 토)
장소 : 연세대학교(원주) 미래관

2016년 학회장 변동 사항

경제사학회	박기주	성신여대 경제학과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유창조(신임)	동국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조장욱(신임)	서강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최영종(신임)	가톨릭대학교 국제학
한국문화인류학회	유철인	제주대 철학
한국사회복지학회	박병현(신임)	부산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조성남(신임)	이화여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이규미	아주대 교육대학원
한국언론학회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
한국여성학회	오정화(신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한국정치학회	강원택(신임)	서울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유평준(신임)	연세대 행정학

협의회 행사

I. 협의회 회의

1. 2015년 이사회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12:00~13:30
장소 : 마노디세프

2. 2015년 정기총회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17:00~ 18:00
장소 : 명동 유네스코 홀

3. 한국연구재단 간담회

일시 : 2015년 6월 17일(수) 8:00~9:30
장소 : 조선히텔 나인스게이트

II. 월례세미나

1. 2015년 제 2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5년 7월 7일(화) 15:0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16동 349호
발표자 : Ruth Collier (Professor, UC Berkeley)
주제 : "The High Tech Economy, Work, and Democracy 2.0: A Research Agenda"

2. 2015년 제 3회 월례세미나

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 오후 4:00~6: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발표자 : 제프리 알렉산더 (Lillian Chavenson Saden Professor of Sociology, Yale University)
주제 : "Contemporary Morality: Crisis, Societalization and Civil Repair"

III. 학술대회

1.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7대과제: 21세기 일류국가를 위한 정책 제언" 학술대회

일시 : 2015년 4월 17일(금) 13:30-18:00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공동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 : 국민은행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협의회 행사

프로그램

등록 (13:00~13:30)

개회식 (13:30~14:00)

개회사 임현진(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축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
기조발표 이중원(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 "한국경제, 희망은 없는가?" :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전체 사회 황석만(한국사회과학협의회 총무위원장, 창원대)

제1패널 (14:00~16:00)

발표 최대석(이화여대) : 위기 속에서 옳은 도약의 씨앗: 1950년대로부터의 교훈
손열(연세대) :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1965년과 2015년: 동아시아 공생의 조건
김형기(경북대) : 박정희 모델: 발전국가의 기적, 위기, 전환
임혁백(고려대) :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기회와 제약
토론 전상인(서울대), 조양현(국립외교원), 이일영(한신대), 전재호(서강대)
사회 김정식(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연세대)

휴식 (16:00~16:15)

제2패널 (16:15-18:00)

발표 신광영(중앙대):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 세계화의 그늘
윤성이(경희대): 뉴미디어의 확산과 한국정치의 변화
이재열(서울대): 이중으로 위험한 불안사회, 한국
토론 김호기(연세대), 조성대(한신대), 안재홍(아주대)
사회 이진규(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고려대 경영대 교수)

만찬 (18:00~)

* 관련 기사 중앙선데이 8회 연재 (2015년 5월 3일~7월 6일)

2.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국제학술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1~22일(목, 금)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공동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중앙선데이
* 관련 기사 중앙선데이 3회 연재 (2015년 11월 2일~11월 29일)

IV. 2015년 12월 KSSJ 42-2호 발간

V. 2015년 11월 단행본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7대과제」 발간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소식란

1. 2015년 7월 임현진 회장님께서 학술원 신입회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2015년 12월 31일로 임현진 현 회장님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신입회장님은 이진규 (고려대 경영대) 교수이시며, 임기는 2016년 1월 1일~17년 12월 31일입니다.
3. 차재호 이사님께서 1985년에 발표하신 논문이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심리학 교과서 「Gilovich 등, (2015), Social Psychology, 3rd ed. NY: Norton.」에 등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차재호, 남기덕, A test of Kelley’s cube theory of attribution: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McArthur’s stud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2, 151-180”입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회장단			
회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국제개발협력회장(2008년) (전) 한국사회학회(2006년) (전) 한국NGO학회
부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연임 (전) 한국정치학회(2011년)
부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겸임 (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차기회장 / 고려대 경영학	겸임(대외협력위원장) (전) 한국인사조직학회(14대)
부회장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	(전) 한국언론학회(32대)
부회장	김복규	계명대 행정학	(전) 한국인사행정학회(2012년)
감사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	
감사	신상협	경희대 국제통상협력학	

이사회			
이사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명예교수)	
이사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명예교수)	
이사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명예교수)	
이사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명예교수)	
이사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명예교수)	
이사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명예교수)	
이사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명예교수)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집행위원회			
사무총장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총무	황석만	창원대 사회학	위원장
총무	서문기	송실대 정보사회학	위원장(공동)
총무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	
총무	이주현	서울시립대 행정학	
총무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총무	김영춘	울산과학기술대 경영학	
연구	손 열	연세대 국제학	위원장
연구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	
연구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	
연구	이정환	국민대 국제학	
연구	정재용	KAIST 경영학	
연구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편집	오철호	송실대 행정학	위원장
위원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차기회장/ 고려대 경영대 교수	위원장
대외협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	
대외협력	변종국	영남대 경영학	
대외협력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대외협력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	
대외협력	최영중	가톨릭대 국제학	
대외협력	김익기	동국대 교양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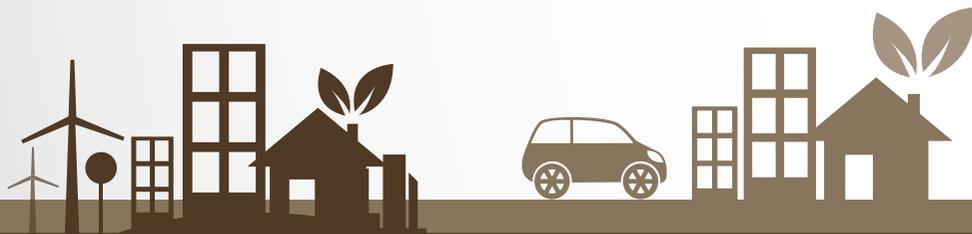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학회 임원진 소개

운영협의위원회		
경제사학회	조석곤	상지대 경제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유철인	제주대 철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김무경	서강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이규미	아주대 교육대학원
한국언론학회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
한국여성학회	공미혜	신라대 가족노인복지학
한국정치학회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사직동) 03028

T. 02 735 2159 F. 02 737 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Sajik-dong), Jongro-ku, Seoul, Korea, 03028

Tel: 82-2-735-2159

Fax: 82-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